

## 成人女性の 화운데이션 製品에 대한 認識과 着用에 관한 研究

金 英 淑\* · 孫 喜 順

\*西南大學校 衣裳디자인學科 專任講師, 淑明女子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Actual Wearing Condition of Foundation Garments for Adult Women

Kim, Young Sook\* and Sohn, Hee Soon

Full-time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Seonam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or the basic data useful to the effective production and marketing of the foundation garments befitting adult women's body shapes and preferences, and thereby, help them improve their apparel life.

For this purpose, 563 Korean adult women aged between 20-59 were sampled to survey their recognition and actual wearing condition of foundation garments and positively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practices and thereupon, determine the correlations among them by age group. Data is processed by a computer (SAS) and analyzed by using frequency, percentage,  $\chi^2$ -test, ANOVA, Duncan-tes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most of the adult women were aware of the basic underwear terminologies and the absolute majority of them wore brassieres, while a half of them used the girdles. In contrast, only a small portion of them wore bodysuits or waste-nippers and the absolute minority of them had garterbelts.
2. The use of the foundations depended much on users' ages or seasons. They had begun to wear brassieres and girdles at their age of 15 on average, and bodysuits, waist-nippers or garterbelts around their age of 20 depending on their individual needs.
3. The adult women had 3-6 brassieres and 2-3 girdles on average, but only a minority of them owned one or two bodysuits, waist-nippers or garterbelts. They had ever used the functional foundations (11.5%) or imported foundations (35.9%),

It has been found through this study that adult women's recognition and actual wearing condition of their foundation garments differ by age group, which may well suggest that foundation production need to take such age-wise practices into consideration in setting up their foundation production and marketing strategies.

#### I. 서 론

과학의 눈부신 발전과 진보는 새로운 섬유와 개발과 의생활에 큰 변혁을 가져다주었을 뿐아니라 생활환경

및 생활양식까지 크게 바꾸어 놓음으로서 여성의 활동 영역도 상당히 확장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의복개념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초래해 의복의 미적 사회적 특성과 함께 가능성이 보다 중시되고 있

\* 본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98학년도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능성 의류인 화운데이션 가먼트 (Foundation Garment) 에 대한 재인식을 불러왔다.<sup>1)</sup>

즉, 「신체를 의식한다」라는 바디 콘셔스 룩 (Body Conscious Look) 에 대한 여성의 의식변화에 편승하여 균형잡힌 건강한 체형과 입었을 때 편안하고 아름다운 실루엣을 나타낼 수 있는, 피트니스와 활동성이 겸비된 화운데이션에 대한 강한 욕구는 아름답고 균형잡힌 몸매를 갖고 싶다는 필요를 그대로 상품화하여 보다 쾌적하고 기분 좋게 입을 수 있는 화운데이션의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사람의 체형은 성별, 민족, 거주지역, 생활상태, 영양상태 등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sup>2)</sup> 각 연령층마다 골격, 근육, 특히 피하지방층의 두께와 침착위치의 변화로 인해 달라지게 되어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특히, 신체에 밀착하여 제2의 피부역할을 하여 보정과 위생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갖는 화운데이션 (Foundation Garment) 의 경우 연령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국내의 연구자들의 화운데이션 착용실태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Weibull curve를 응용하여 거들의 사용상황을 파악한 통계적 연구<sup>3)</sup>를 비롯하여 속옷의 종류와 속옷에 요구되는 품질과 성능에 관해 고찰한 연구<sup>4)</sup>와 가슴과 엉덩이의 형태에 대한 특징을 고찰하고 브래지어, 거들의 종류 및 착용방법에 대해 고찰한 연구<sup>5,6)</sup> 등이 있다.

또한 고교생, 대학생, 주부를 대상으로 화운데이션의 착용실태를 조사한 연구<sup>7)</sup>가 있으며 대구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속옷에 대한 인식과 사용실태를 조사한 연구,<sup>8)</sup> 여중고생의 브래지어 및 거들의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sup>9)</sup> 브래지어의 착용상태에서 느끼는 브래지어에 대한 불만족요인을 조사한 연구,<sup>11)</sup> 노년기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 및 구매실태에 관한 연구<sup>12,13)</sup> 등 연령 또는 지역을 달리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실태조사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화운데이션 의류 중 브래지어나 거들 등 단품목에 한정되거나 특정 연령에 대한 실태 파악에 그치고 있어 화운데이션 전품목을 다루거나 성인 여성 전체를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연령별 화운데이션 제품의 고급화와 함께 기능성·심미성이 일치된

우수한 제품생산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성인여성의 화운데이션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 및 착용현황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연구함으로써 성인여성의 체형과 기호에 알맞는 우수한 화운데이션의 생산 및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여성들의 의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20~59세의 성인여성으로 1998년 2월 12일부터 2월 20일에 걸쳐 예비설문지를 작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1998년 3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불완전한 응답지를 제외한 설문지가 자료처리에 이용되었고 연령분포는 다음 <표 1> 과 같이 20대가 29.1%, 30대 27.5% 40대 22.4%, 50대 21.0%로 총 563명이 표본으로 이용되었다.

### 2. 조사내용 및 조사도구

성인여성의 화운데이션 착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총 39문항의 설문지로서, 설문지 구성을 위한 자료는 선행연구 등 화운데이션 착용실태 관련 자료를 기초로하여 화운데이션 관련업체 종사자 및 디자이너와의 면담 및 제공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 1) 연령별 속옷용어 및 신체치수 인지도 조사

성인여성의 연령별 속옷용어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19가지 속옷 품목에 관한 19문항과 신체치수 인지도에 관한 4문항과 키, 몸무게, 가슴둘

<표 1>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

연령 (세)	인원수 (명)	백분율 (%)
20~29세	164	29.1
30~39세	155	27.5
40~49세	126	22.4
50~59세	118	21.0
합 계	563	100.0

레, 엉덩이둘레의 신체치수에 관한 4문항 등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신체치수는 조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치수를 직접 기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2) 연령별 화운데이션 착용현황 조사

성인여성의 화운데이션 착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화운데이션의 착용상태, 연령별·계절별 착용방식, 시착시기, 소유매수에 관한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기능성(맞춤) 화운데이션 및 수입 화운데이션에 대한 착용현황 조사

성인여성의 기능성 및 수입 화운데이션에 대한 착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기능성 및 수입 화운데이션의 착용경험 여부, 착용동기, 체형보정효과, 등에 대한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조사를 위한 설문자료는 SAS로 전산처리 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을 행하여  $\chi^2$ -test, F-test로 유의성을, Duncan-test로 사후검증을 하였고 전 항목 별 무응답은 missing value로 처리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속옷용어에 대한 인지도 및 신체치수 인지도

1) 속옷용어에 대한 인지도

성인여성들의 속옷 용어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적으로 브라지어 (98.4%), 거들 (95.6%), 팬티 (94.0%), 슬립 (90.4%)의 경우는 90% 이상의 매우 높은 인지율로 거의 대부분의 성인여성들이 이러한 속옷용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스포츠브라 (70.5%), 패티코트 (66.1%), 브라슬립 (62.7%), 캐미솔 (54.2%), 울인원 (53.0%)은 50% 이상의 인지율을 나타냈으나 롱브라 (43.3%), 보디수트 (37.3%), 웨이스트니퍼 (27.1%), 란쥬 (23.5%), 가터벨트 (23.1), 브리프 (21.0%), 쇼츠 (20.6%), 마터니티브라 (17.1%), 프론트훅브라 (13.0%), 드로워즈 (8.5%)의 경우 50% 이

<표 2> 연령별 속옷 용어에 대한 인지도

용어 \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합 계	F값
브래지어 (브라)	164 (100) A	154 (99.4) A	124 (98.4) A	112 (94.9) B	554 (98.4)	4.3**
거들	161 (98.2) A	151 (97.4) A	118 (93.7) AB	108 (91.5) B	538 (95.6)	3.2**
보디수트	87 (53.1) A	64 (41.3) B	33 (26.2) C	26 (22.0) C	210 (37.3)	13.1***
가터벨트	47 (28.7) A	42 (27.1) A	18 (14.3) B	23 (19.5) AB	130 (23.1)	3.6**
웨이스트니퍼	44 (26.8) AB	51 (32.9) A	35 (27.8) AB	22 (18.8) B	152 (27.1)	2.3*
캐미솔	107 (65.2) A	106 (68.4) A	59 (46.8) B	33 (28.0) C	305 (54.2)	20.6***
란쥬	38 (23.2) A	46 (29.7) A	26 (20.6) B	22 (18.6) B	132 (23.5)	1.8
패티코트	122 (74.4) A	118 (76.1) A	63 (50.0) B	69 (58.5) B	372 (66.1)	10.4***
쇼츠	36 (22.0) A	40 (25.8) A	21 (16.7) B	19 (16.1) B	116 (20.6)	1.8
슬립	157 (95.7) A	142 (91.6) A	112 (88.9) AB	98 (83.1) B	509 (90.4)	4.5**
브라슬립	97 (59.2) A	99 (63.9) A	87 (69.1) B	70 (59.3) B	353 (62.7)	1.2
팬티	161 (98.2) A	147 (94.8) A	112 (88.9) B	109 (92.4) AB	529 (94.0)	3.9**
울인원	74 (45.1) B	106 (68.4) A	79 (62.7) A	39 (33.3) C	298 (53.0)	14.9***
스포츠브라	139 (84.8) A	125 (80.7) A	84 (66.7) B	49 (41.5) C	397 (70.5)	27.4***
마터니티브라	26 (15.9) B	49 (31.6) A	11 (8.7) B	10 (8.6) B	96 (17.1)	12.5***
프론트훅브라	35 (21.3) A	25 (16.1) A	6 (4.8) B	7 (6.0) B	73 (13.0)	8.3***
드로워즈	21 (12.8) A	16 (10.3) AB	5 (4.0) B	6 (5.1) B	48 (8.5)	3.2*
롱브라	51 (31.1) C	73 (47.1) AB	71 (56.4) A	49 (41.5) B	244 (43.3)	6.8***
브리프	43 (26.2) A	46 (29.7) A	17 (13.5) B	12 (10.2) B	118 (21.0)	7.7***

영문자는 Duncan-test 결과임. p<.05\* p<.01\*\* p<.001\*\*\*.

하의 비율로 다른 용어에 비해 낮은 인지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란쥬, 쇼츠, 브라슬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 연령에 따른 속옷 인지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속옷용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나 웨이스트니퍼, 울인원, 마터니티브라의 경우 30대가, 롱브라의 경우 40대의 인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출산과 수유의 경험 등으로 체형변화가 심한 30대 이후 중년층의 체형특성상 체형보정을 위한

화운데이션류에 대한 높은 관심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 신체치수 인지도

신체치수 인지도를 살펴보면 <표 3>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성인여성은 자신의 키(97.2%)와 몸무게(95.5%)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데 반해 가슴둘레(53.6%) 엉덩이둘레(40.7%)는 중정도의 인지도를 나타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의 경우 모든 치수에 대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 신체치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연령층으로 나타났고 30대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치수 인지율이 낮은 편이며, 50대의 경우는 키에서 20대의 경우는 몸무게에서 인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체형특징

조사대상자의 신체치수를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평균이 전체적으로 키 159.9cm, 몸무게 54.1kg 가슴둘레 85.6cm, 엉덩이둘레 89.8cm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97년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59세 여성의 평균신체치수는 키 158.0cm, 몸무게 54.3kg 가슴둘레 85.1cm, 엉덩이둘레 90.1cm로 키를 제외한 나머지 치수들은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키는 인지치수 보다 작고 몸무게는 인지치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이 자신을 마르게 평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의적 차이가 인정되어 키는 20대(161.6cm)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으나 몸무게와 가슴둘레는 50대가 57.6kg과 89.4cm로 가장 높았

고 연령이 낮을수록 치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엉덩이둘레는 30대의 경우, 86.4cm로 다른 세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치수를 나타내었고 20대의 경우 다른 항목에 비해 엉덩이둘레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로리지수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97년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와 비교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의 신체치수를 비교적 잘 알고 있으며 40대와 50대의 경우는 키를, 30대의 경우는 엉덩이둘레 치수를 작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화운데이션 착용현황

1) 화운데이션의 착용상태

성인여성의 화운데이션 착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브라지어는 거의 모든 성인여성이(97.7%)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들의 경우도 64.8%로 과반수 이상의 여성이 착용하고 있으나 보디수트(7.7%)와 웨이스트니퍼(7.3%)의 경우는 10%내의 낮은 착용율을 나타냈고 가터벨트는 매우 극소수(1.8%)의 여성들에 의해 착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브라지어와 거들은 성인여성들이 착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화운데이션 제품임이 확인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브라지어와 거들의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착용율이 낮고 특히 50대의 미착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디수트와 가터벨트의 경우 연령별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별 유의차를 보인 웨이스트니퍼와 마찬가지로 30대와 40대의 착용율이 20대와 50대의 착

<표 3> 연령별 신체치수 인지도

연령 인지도	명 (%)					F-값
	20대	30대	40대	50대	전 체	
키	160 (97.6) A	149 (96.1) B	126 (100.0) A	112 (94.2) C	547 (97.2)	15.5***
몸무게	153 (92.7) C	148 (95.5) B	126 (100.0) A	114 (96.6) A	540 (95.5)	40.0***
가슴둘레	91 (55.5) B	73 (47.1) B	67 (53.2) A	71 (60.2) A	302 (53.6)	25.6***
엉덩이둘레	66 (40.2) A	57 (36.8) B	52 (42.3) A	54 (45.8) A	229 (40.7)	3.9*

p<.05\* p<.01\*\* p<.001\*\*\*.

<표 4>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신체치수 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연령 인지도	20대	30대	40대	50대	전 체	F-값
키 (cm)	161.6 (4.5) A	160.0 (4.4) B	159.4 (4.7) B	157.9 (4.5) C	159.9 (4.7)	15.7***
몸무게 (kg)	50.6 (4.8) C	53.2 (6.4) B	56.3 (5.7) A	57.6 (6.1) A	54.1 (6.4)	40.0***
가슴둘레 (cm)	82.5 (4.9) B	83.8 (5.6) B	87.9 (6.1) A	89.4 (6.1) A	85.6 (6.3)	25.6***
엉덩이둘레 (cm)	90.0 (5.3) A	86.4 (10.3) B	91.6 (7.2) A	91.4 (12.4) A	89.8 (9.3)	3.9*
로리지수	1.2 (0.2) D	1.3 (0.1) C	1.4 (0.1) B	1.5 (0.2) A	1.3 (0.2)	95.8***

영문자는 Duncan-test 결과임. p<.05\* p<.01\*\* p<.001\*\*\*.

〈표 5〉 '97년 국민표준체위조사 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전 체
신체치수					
키 (cm)	160.0 (4.9)	157.8 (4.9)	156.7 (4.6)	153.4 (4.5)	158.0 (4.8)
몸무게 (kg)	52.0 (5.7)	54.9 (6.3)	57.1 (6.7)	57.2 (6.7)	54.3 (6.2)
가슴둘레 (cm)	81.8 (4.8)	86.4 (4.9)	87.5 (6.5)	90.2 (7.4)	85.1 (6.3)
엉덩이둘레 (cm)	89.1 (4.3)	90.0 (4.5)	91.7 (4.6)	91.7 (4.7)	90.1 (4.5)
로려자수	1.3 (1.4)	1.4 (1.4)	1.5 (1.7)	1.6 (2.1)	1.5 (1.7)

〈표 6〉 연령별 화운데이션 착용상태

종류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전 체	F-값
브래지어		164 (100.0)	154 (99.4)	124 (98.4)	108 (91.5)	550 (97.7)	9.0**
		A	A	A	B		
거들		115 (70.1)	108 (69.7)	76 (60.3)	66 (56.0)	365 (64.8)	3.0*
		A	A	AB	B		
보디수트		9 ( 5.5)	14 ( 9.0)	12 ( 9.5)	8 ( 6.8)	43 ( 7.7)	0.7
웨이트니퍼		5 ( 3.1)	14 ( 9.0)	16 (12.7)	6 ( 5.1)	41 ( 7.3)	3.8*
		B	AB	A	B		
가터벨트		0 ( 0.0)	5 ( 3.2)	3 ( 2.4)	2 ( 1.7)	10 ( 1.8)	1.7
전체		164 (29.1)	155 (27.5)	126 (22.4)	118 (21.0)	563 (100.0)	

영문자는 Duncan-test 결과임. p<.05\* p<.01\*\* p<.001\*\*\*.

용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 수유등으로 체형 변화정도가 큰 30대와 40의 경우 몸통부위의 체형보정을 목적으로 보디수트나 웨이트니퍼의 착용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화운데이션에 대한 인지도가 타 연령층에 비해 높았던 30와 40대 중년층의 체형보정을 위한 화운데이션에 대한 관심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화운데이션의 계절별 착용방식

성인여성의 연령별·계절별 화운데이션 착용방식을 살펴보면 〈표 7〉에 나타난 바와같이 계절별로 살펴보면 화운데이션 미착용의 경우는 여름 (6.9%), 겨울 (3.7%)로 봄,가을에 비해 미착용율이 높았고 브래지어만 착용하는 경우는 여름이 72.3%로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봄, 가을, 겨울 순으로 착용비율을 보였으며 거들만 착용하는 경우는 겨울이 8.2%로 가장 높았으며 브래지어와 거들을 함께 착용하는 경우는 겨울 (46.4%), 가을 (41.4%), 봄 (39.4%), 여름 (22.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디수트는 겨울, 웨이트니퍼와 가터벨트의 경우는 가을철 착용율이 가장 높고 여름철 착용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령별 화운데이션의 계절별 착용방식

착용방식	연령 계절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유의수준
화운데이션 선용착용 하지얇음	봄	1 ( 0.6)	4 ( 2.6)	1 ( 0.8)	7 ( 5.9)	13 ( 2.3)	10.3*
	여름	4 ( 2.4)	15 ( 9.7)	3 ( 2.4)	17 (14.4)	39 ( 6.9)	21.3***
	가을	1 ( 0.6)	3 ( 1.9)	1 ( 0.8)	4 ( 3.4)	9 ( 1.6)	4.1*
	겨울	2 ( 1.2)	4 ( 2.6)	3 ( 2.4)	12 (10.2)	21 ( 3.7)	17.7***
	합계	8 ( 1.1)	26 ( 3.8)	8 ( 1.2)	40 ( 7.3)	82 ( 3.3)	
브래지어 만 착용함	봄	89 (54.3)	81 (52.3)	63 (50.0)	71 (60.2)	304 (54.0)	2.8*
	여름	123 (75.0)	117 (75.5)	88 (69.8)	79 (67.0)	407 (72.3)	3.4*
	가을	84 (51.2)	78 (50.3)	60 (47.6)	68 (57.6)	290 (51.5)	2.6*
	겨울	81 (49.4)	66 (42.6)	55 (43.7)	66 (55.9)	268 (47.6)	5.8*
	합계	377 (53.9)	342 (49.3)	417 (61.3)	284 (52.0)	1269 (51.4)	
거들만 착용함	봄	5 ( 3.1)	9 ( 5.8)	4 ( 3.2)	16 (13.6)	34 ( 6.0)	16.2***
	여름	1 ( 0.6)	2 ( 1.3)	1 ( 0.8)	8 ( 6.8)	12 ( 2.1)	15.6***
	가을	5 ( 3.1)	9 ( 5.8)	4 ( 3.2)	16 (13.6)	34 ( 6.0)	16.2***
	겨울	8 ( 4.9)	18 (11.6)	5 ( 4.0)	15 (12.7)	46 ( 8.2)	11.0**
	합계	19 (2.7)	38 (5.5)	14 ( 2.1)	55 (10.1)	126 ( 5.1)	
브래지어 + 거들	봄	71 (43.3)	63 (40.7)	49 (38.9)	39 (33.1)	222 (39.4)	3.1*
	여름	38 (23.2)	33 (21.3)	35 (27.8)	19 (16.1)	125 (22.2)	5.0*
	가을	76 (46.3)	67 (43.2)	53 (42.1)	37 (31.4)	233 (41.4)	6.8**
	겨울	89 (54.3)	81 (52.3)	53 (42.1)	38 (32.2)	261 (46.4)	16.7***
	합계	274 (39.2)	244 (35.2)	190 (27.9)	133 (24.4)	841 (34.1)	
보디수트	봄	2 ( 1.2)	3 ( 1.9)	4 ( 3.2)	3 ( 2.5)	12 ( 2.1)	1.4
	여름	0 ( 0.0)	1 ( 0.7)	3 ( 2.4)	2 ( 1.7)	6 ( 1.1)	4.5*
	가을	2 ( 1.2)	5 ( 3.2)	4 ( 3.2)	6 ( 5.1)	17 ( 3.0)	3.6*
	겨울	6 ( 3.7)	5 ( 3.2)	3 ( 2.4)	4 ( 3.4)	18 ( 3.2)	0.4
	합계	10 ( 1.4)	14 ( 2.0)	14 ( 2.1)	15 ( 2.7)	53 ( 2.1)	
웨이트 니퍼	봄	2 ( 1.2)	5 ( 3.2)	8 ( 6.4)	3 ( 2.5)	18 ( 3.2)	6.3**
	여름	1 ( 0.6)	2 ( 1.3)	3 ( 2.4)	2 ( 1.7)	8 ( 1.4)	1.7
	가을	4 ( 2.4)	10 ( 6.5)	10 ( 7.9)	4 ( 3.4)	28 ( 5.0)	5.9*
	겨울	4 ( 2.4)	8 ( 5.2)	7 ( 5.6)	4 ( 3.4)	23 ( 4.1)	2.4*
	합계	11 ( 1.6)	25 ( 3.6)	28 ( 4.1)	13 ( 2.4)	77 ( 3.1)	
가터벨트	봄	0 ( 0.0)	2 ( 1.3)	3 ( 2.4)	1 ( 0.9)	6 ( 1.1)	4.0*
	여름	0 ( 0.0)	0 ( 0.0)	1 ( 0.8)	1 ( 0.9)	2 ( 0.4)	2.6*
	가을	0 ( 0.0)	2 ( 1.3)	3 ( 2.4)	2 ( 1.7)	7 ( 1.2)	3.6*
	겨울	0 ( 0.0)	1 ( 0.7)	2 ( 1.6)	2 ( 1.7)	5 ( 0.9)	3.1*
	합계	0 ( 0.0)	5 ( 0.7)	9 ( 1.3)	6 ( 1.1)	20 ( 0.8)	
전 체		699 (28.3)	694 (28.1)	680 (27.6)	546 (22.1)	2468 (100.0)	

복수응답 처리하였음. p<.05\* p<.01\*\* p<.001\*\*\*

따라서 여름에는 화운데이션의 미착용율이 다른 계절에 비해 가장 높아 브래지어와 거들을 함께 착용하기 보다는 브래지어만을 착용하고 보디수트, 웨이트니퍼, 가터벨트의 착용율은 거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겨울에는 타 계절에 비해 화운데이션의 착용율이 비교적 높아 계절별로 화운데이션 착용방식의 차이를 보였는데 계절별 속옷 착용매수에서 여름과 겨울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sup>14)</sup>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 8〉 연령별 브래지어 시착시기

연령 시착시기	20대	30대	40대	50대	합 계	유의수준
15세 미만	123 (75.0)	84 (54.2)	31 (24.6)	30 (25.4)	268 (47.6)	$\chi^2=145.9^{***}$ df=12 p<.001
15~19세	41 (25.0)	70 (45.2)	92 (73.0)	69 (58.5)	272 (48.3)	
20~24세	0 ( 0.0)	1 ( 0.7)	2 ( 1.6)	15 (12.7)	18 ( 3.2)	
25~29세	0 ( 0.0)	0 ( 0.0)	0 ( 0.0)	2 ( 1.7)	2 ( 0.4)	
30세 이상	0 ( 0.0)	0 ( 0.0)	1 ( 0.8)	2 ( 1.7)	3 ( 0.5)	
전체	164 (29.1)	155 (27.5)	126 (22.4)	118 (21.0)	563 (100)	

연령별로 살펴보면 화운데이션을 착용하지 않는 비율은 50대 (7.3%)가 가장 높았고 브래지어만 착용하는 경우는 40대가 61.3%로 가장 높았으며 거들만 착용하는 경우는 50대가 1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브래지어와 거들을 함께 착용하는 경우는 20대 (39.2%), 30대 (35.2%), 40대 (27.9%), 50대 (24.4%)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브래지어와 거들을 함께 갖춰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디수트는 50대가 웨이스트니퍼와 가터벨트의 경우는 40대의 착용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젊은 연령층일수록 브래지어와 거들의 기본적인 화운데이션의 착용율이 높은 반면 고연령층일수록 브래지어와 거들의 기본적인 화운데이션의 착용율은 낮은 편이나 보디수트, 웨이스트니퍼, 가터벨트의 착용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화운데이션 시착시기

1) 연령별 브래지어 시착시기

연령별 브래지어 시착시기는 〈표 8〉과 같이 전체적으로 15~19세가 48.3%, 15세 미만이 47.6%로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고 20세 이상은 응답율이 낮아 성인이 되기전 신체발육기인 10대에 처음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5세 미만에 처음 착용한다고 한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고, 15~19세의 시착율은 40대에서 높았고 20세 이상의 시착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 성인여성들의 브래지어 시착시기에 대한 뚜렷한 차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

2) 연령별 거들 시착시기

거들 시착시기는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15세 미만에 처음 착용한 경우가 54.2%, 15~19세가 34.1%, 20~24세가 6.9%로 나타났고 25세 이상의 시착율은

〈표 9〉 연령별 거들 시착시기

연령 시착시기	20대	30대	40대	50대	합 계	유의수준
15세 미만	59 (36.0)	56 (36.6)	45 (36.3)	21 (18.6)	181 (54.2)	$\chi^2=64.2^{***}$ df=15 p<.001
15~19세	18 (11.0)	39 (25.5)	31 (25.0)	26 (23.0)	114 (34.1)	
20~24세	3 ( 1.8)	9 ( 5.9)	3 ( 2.4)	8 ( 7.0)	23 ( 6.9)	
25~29세	0 ( 0.0)	0 ( 0.0)	5 ( 4.0)	3 ( 2.7)	8 ( 2.4)	
30세 이상	0 ( 0.0)	0 ( 0.0)	2 ( 1.6)	6 ( 5.3)	8 ( 2.4)	
전체	80 (24.0)	104 (31.1)	86 (25.7)	64 (19.2)	334 (100.0)	

〈표 10〉 연령별 보디수트 시착시기

연령 시착시기	20대	30대	40대	50대	합 계	유의수준
15세 미만	1 ( 9.1)	3 (23.1)	2 (14.3)	2 (28.6)	8 (17.8)	$\chi^2=18.4^*$ df=15 p<.05
15~19세	7 (63.6)	5 (38.5)	5 (35.7)	1 (14.3)	18 (40.0)	
20~24세	3 (27.3)	3 (23.1)	1 ( 7.1)	0 ( 0.0)	7 (15.6)	
25~29세	0 ( 0.0)	2 (15.4)	1 ( 7.1)	1 (14.3)	4 ( 8.9)	
30~34세	0 ( 0.0)	0 ( 0.0)	3 (21.4)	2 (28.6)	5 (11.1)	
35세 이상	0 ( 0.0)	0 ( 0.0)	2 (14.3)	1 (14.3)	3 ( 6.7)	
전체	11 (24.4)	13 (28.9)	14 (31.1)	7 (15.6)	45 (100.0)	

2.4%로 저조해 전체 성인여성의 88.3%가 19세 이전에 거들 착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20대는 15세 이전 시착율이 높았고 50대의 경우는 15~19세의 시착율이 높아 연령이 낮은 층일수록 시착시기가 더 빨라지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거들의 시착시기가 늦어져 최근들어 거들 착용의 조기화됨을 추측할 수 있다.

3) 연령별 보디수트 시착시기

보디수트의 시착시기는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15~19세에 처음 착용한 경우가 40.0%로 제일 높았고, 15세 미만이 17.8%, 20~24세가 15.6%, 30~34세가 11.1%의 순으로 나타나 중·고등학교 시기에 처음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별로 보면 각 연령간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보디수트는 타 화운데이션에 비해 연령차에 기인하기 보다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착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4) 연령별 웨이스트니퍼 시착시기

웨이스트니퍼의 시착시기는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4세가 3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40세 이상이 17.8%, 15~19세와 30~34세가 15.6% 순으로 나타나 보디수트와 마찬가지로 중고생 시기에 착용을 시작하고, 상하복부의 강한 보정효과가 있는

〈표 11〉 연령별 웨이스트니퍼 시착시기

연령 시착시기	20대	30대	40대	50대	합 계	유의수준
15~19세	2 (25.0)	0 ( 0.0)	3 (17.7)	2 (28.6)	7 (15.6)	$\chi^2=24.1^*$ df=15 p<.05
20~24세	4 (50.0)	6 (46.1)	5 (29.4)	2 (28.6)	17 (37.8)	
25~29세	1 (12.5)	3 (23.1)	0 ( 0.0)	0 ( 0.0)	4 ( 8.9)	
30~34세	1 (12.5)	4 (30.8)	1 ( 5.9)	1 (14.3)	7 (15.6)	
35~39세	0 ( 0.0)	0 ( 0.0)	1 ( 5.9)	1 (14.3)	2 ( 4.4)	
40세 이상	0 ( 0.0)	0 ( 0.0)	7 (41.2)	1 (14.3)	8 (17.8)	
전체	8 (17.8)	13 (28.9)	17 (37.6)	7 (15.6)	45 (100.0)	

〈표 12〉 연령별 가터벨트 시착시기

연령 시착시기	20대	30대	40대	50대	합 계	유의수준
15~20세	0 ( 0.0)	0 ( 0.0)	1 (100.0)	0 ( 0.0)	1 ( 25.0)	$\chi^2=4.0$ df=4
20세 이상	0 ( 0.0)	1 (100.0)	0 ( 0.0)	2 (100.0)	3 ( 75.0)	
전체	0 ( 0.0)	1 ( 25.0)	1 ( 25.0)	2 ( 50.0)	4 (100.0)	

웨이스트니퍼의 특성상 체형변이가 심한 35세 이후 중년기에 이르러 착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각 연령간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각 개인의 목적에 따라 착용하는 품목임을 알 수 있다.

5) 연령별 가터벨트 시착시기

성인여성의 가터벨트 시착시기는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75.0%가 20세 이후에 가터벨트의 착용을 시작했으며 연령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성인여성들은 전체적으로 브래지어와 거들은 평균 15세를 전후해 착용을 시작해 화운데이션 중 시작시기가 빠르고, 가터벨트, 보디수트와 웨이스트니퍼의 경우는 주로 20세를 전후해서 시작하고 30대 이후의 시착율도 높게 나타나 브래지어와 거들의 경우는 신체 성장기인 중고등학생 시기에 시작하고 가터벨트, 보디수트, 웨이스트니퍼의 경우는 주로 20세부터 개인적 필요시기에 맞춰 다양하게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화운데이션 소유매수

1) 연령별 브래지어 소유매수

성인여성들의 연령별 브래지어 소유매수는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5~6개를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4개와 7~8개가 29.3%, 11.6%로 성인

〈표 13〉 연령별 브래지어 소유매수

연령 소유매수	20대	30대	40대	50대	합 계	유의수준
0	1 ( 0.6)	0 ( 0.0)	0 ( 0.0)	5 ( 4.2)	6 ( 1.1)	$\chi^2=89.6^{***}$ df=48 p<.001
1~2	4 (14.6)	1 ( 0.6)	7 ( 5.6)	4 ( 3.2)	16 ( 2.9)	
3~4	46 (28.4)	32 (21.2)	50 (43.7)	36 (30.5)	164 (29.3)	
5~6	75 (45.7)	75 (49.7)	45 (35.7)	51 (43.2)	235 (42.0)	
7~8	23 (14.0)	23 (15.2)	8 ( 6.3)	11 ( 9.3)	65 (11.6)	
9~10	18 (11.0)	18 (11.9)	10 ( 7.9)	10 ( 8.5)	56 (10.0)	
11 이상	7 ( 4.3)	3 ( 2.0)	6 ( 4.8)	1 ( 0.8)	17 ( 3.0)	
전체	164 (29.3)	151 (27.0)	126 (22.5)	118 (21.1)	559 (100.0)	

〈표 14〉 연령별 거들 소유매수

연령 소유매수	20대	30대	40대	50대	합 계	유의수준
0	14 ( 8.6)	12 ( 8.9)	27 (21.4)	35 (29.7)	88 (16.2)	$\chi^2=32.8^{***}$ df=12 p<.001
1~2	75 (46.0)	65 (48.2)	62 (49.2)	49 (41.5)	251 (46.3)	
3~4	58 (35.6)	45 (33.3)	30 (23.8)	23 (19.5)	156 (28.8)	
5~6	15 ( 9.2)	12 ( 8.9)	6 ( 4.8)	9 ( 7.6)	42 ( 7.8)	
7 이상	1 ( 0.6)	1 ( 0.7)	1 ( 0.8)	2 ( 1.7)	5 ( 0.9)	
전체	142 (30.6)	78 (16.8)	126 (27.2)	118 (25.4)	464 (100.0)	

여성들은 대부분 3~6개 정도의 브래지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브래지어가 여성용 의복류의 필수품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각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 50대의 경우는 5~6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40대의 경우는 3~4개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 연령별 차이가 인지되었고 특히 7개 이상의 많은 브래지어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젊은층일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내 젊은 연령층일수록 비교적 여러개의 브래지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별 거들 소유매수

성인여성의 연령별 거들 소유매수는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46.3%가 1~2개를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4개 28.8%, 5~6개 7.8%의 순으로 나타났고 거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16.2%나 되어 선택적 사용경향이 큰 거들의 경우 보통 한 두개 정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 20대와 30대의 경우 3~4개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40대와 50대의 경우는 거들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0% 이상으로 타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소유매수가 많은

〈표 15〉 연령별 보디수트 소유매수

연령 소유매수	20대	30대	40대	50대	합 계	유의수준
0	118 (83.1)	54 (69.2)	108 (85.7)	103 (87.3)	383 (82.6)	$\chi^2=31.5^{***}$ df=9 p<.001
1	21 (14.8)	12 (15.4)	9 ( 7.1)	5 ( 4.2)	47 (10.1)	
2	2 ( 1.4)	7 ( 9.0)	8 ( 6.4)	9 ( 7.6)	26 ( 5.6)	
3 이상	1 ( 0.7)	5 ( 6.4)	1 ( 0.8)	1 ( 0.9)	8 ( 1.7)	
전체	142 (30.6)	78 (16.8)	126 (27.2)	118 (25.4)	464 (100.0)	

〈표 16〉 연령별 웨이트니퍼 소유매수

연령 소유매수	20대	30대	40대	50대	합 계	유의수준
0	127 (90.7)	50 (69.4)	104 (82.5)	106 (89.3)	387 (84.9)	$\chi^2=25.5^{**}$ df=9 p<.001
1	9 ( 6.4)	14 (19.4)	19 (15.1)	8 ( 6.8)	50 (11.0)	
2	3 ( 2.1)	6 ( 8.3)	2 ( 1.6)	4 ( 3.4)	15 ( 3.3)	
3 이상	1 ( 0.7)	2 ( 2.8)	1 ( 0.8)	0 ( 0.0)	4 ( 0.9)	
전체	140 (30.7)	72 (15.8)	126 (27.6)	118 (25.9)	456 (100.0)	

것으로 나타났다.

3) 연령별 보디수트 소유매수

성인여성의 연령별 보디수트 소유매수는 〈표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82.6%가 보디수트를 소유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성인여성의 17.4%만이 보디수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유의적 차이가 인정되어 연령간의 차이를 보여 30대의 보디수트 소유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 40대, 50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2개 이상의 보디수트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령별 웨이트니퍼 소유매수

성인여성의 연령별 웨이트니퍼 소유매수는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84.9%의 성인여성이 웨이트니퍼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약 15.1%만이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성인여성이 웨이트니퍼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보디수트와 마찬가지로 타연령대 보다 30대의 웨이트니퍼 소유율이 높게 나타나 높은 착용율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였다.

5) 연령별 가터벨트 소유매수

성인여성의 연령별 가터벨트 소유매수는 〈표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소유율이 매우 낮아 전체 성인여성의 8.2%만이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표 17〉 연령별 가터벨트 소유매수

연령 소유매수	20대	30대	40대	50대	합 계	유의수준
0	133 (97.1)	59 (85.5)	108 (85.7)	113 (95.8)	413 (91.8)	$\chi^2=23.3^{**}$ df=9 p<.01
1	3 ( 2.2)	8 (11.6)	14 (11.1)	4 ( 3.4)	29 ( 6.4)	
2	1 ( 0.7)	0 ( 0.0)	3 ( 2.4)	0 ( 0.0)	4 ( 0.9)	
3 이상	0 ( 0.0)	2 ( 2.9)	1 ( 0.8)	1 ( 0.9)	4 ( 0.9)	
전체	137 (30.4)	69 (15.3)	126 (28.0)	118 (26.2)	450 (100.0)	

거의 대부분의 성인여성은 가터벨트를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 개 정도의 가터벨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화운데이션 중 가장 착용율이 낮아 소유율도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비교적 소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터벨트에 대한 관심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인여성은 화운데이션의 품목 중 브라지어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어 브라지어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1%에 머무른 반면 거들의 경우는 16.2%, 보디수트 82.6%, 웨이트니퍼 84.9%, 가터벨트 91.8%가 소유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성인여성은 브라지어와 거들은 소유하고 있지만 보디수트, 웨이트니퍼, 가터벨트는 소수의 여성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기능성 및 수입 화운데이션 착용현황

1) 연령별 기능성 화운데이션 착용유무

성인여성들의 일명 맞춤속옷이라 불리는 기능성 화운데이션의 착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표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착용경험이 있다는 11.5%, 없다가 88.5%로 소수의 여성들만이 착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18.4%로 가장 높았고 50대 12.0%, 30대 9.8%, 20대 7.4%의 분포로 40대와 50대 여성의 착용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 대체로 연령이 높은 여성일수록 기능성 화운데이션의 착용경험이 높게 나타나 결과를 보였다. 이는 출산·수유·노화로 인해 체형의 변형이 심하게 일어난 중노년층 여성들은 건강과 신체 정용·보정 효과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기능성 화운데이션에 대한 구매행동이 젊은 여성층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18〉 연령별 기능성 화운데이션 착용유무

연령 착용유무	20대	30대	40대	50대	합 계	유의수준
있다.	12 ( 7.4)	5 ( 9.8)	23 (18.4)	13 (12.0)	63 ( 11.5)	$\chi^2=9.0^*$ df=3 p<.05
없다.	150 (92.6)	138 (90.2)	102 (81.6)	95 (88.0)	485 ( 88.5)	
전체	162 (29.6)	153 (27.9)	125 (22.8)	108 (19.7)	548 (100.0)	

〈표 19〉 연령별 기능성 화운데이션 착용동기

연령 착용이유	20대	30대	40대	50대	합 계	유의수준
주위의 권유	5 (38.5)	9 (40.9)	14 (40.0)	7 (35.0)	35 ( 38.9)	$\chi^2=5.5$ df=12
신문·잡지	2 (15.4)	5 (22.7)	5 (14.3)	1 ( 5.0)	13 ( 14.4)	
팸플렛·카탈로그	2 (15.4)	2 ( 9.1)	2 ( 5.7)	2 (10.0)	8 ( 8.9)	
방문판매	1 ( 7.7)	2 ( 9.1)	3 ( 8.6)	2 (10.0)	8 ( 8.9)	
판매원의 권유	3 (23.1)	4 (18.2)	11 (31.4)	8 (40.0)	26 ( 28.9)	
전체	13 (14.4)	22 (24.4)	35 (38.9)	20 (22.2)	90 (100.0)	

2) 연령별 기능성 화운데이션 착용동기

기능성 화운데이션을 착용하게된 동기를 조사한 결과 <표 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주위의 권유에 의해 착용하게 됐다고 응답한 경우가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속옷 구입시 판매원의 권유 28.9%, 신문·잡지 14.4%, 팸플렛·카탈로그와 방문판매 8.9%로 나타나 본인의 주관적인 필요에 따르기보다는 대체로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기능성 화운데이션을 구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 유의적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20대와 30대의 경우는 신문·잡지 및 팸플렛·카탈로그를 보고 착용하기 시작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아 비교적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50대의 경우는 판매원의 권유로 착용하게 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브래지어 구매의사결정시 연령이 높을수록 판매원이 중요한 구매정보원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sup>15)</sup>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3) 연령별 기능성 화운데이션 착용효과

기능성 화운데이션 착용후 보정효과를 조사한 결과 <표 20>에 나타난 바와같이, 전체적으로 그저그렇다 31.6%, 효과가 조금 있다 27.6%, 효과가 조금 없다 26.5%, 효과가 전혀 없다 11.2%, 효과가 매우 크다 3.1%로 기능성 화운데이션 착용후 여성들은 기대했던 만큼의 정용·보정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의적 차이는 인정되지

〈표 20〉 연령별 기능성 화운데이션 착용효과

연령 착용효과	20대	30대	40대	50대	합 계	유의수준
효과가 전혀 없다	0 ( 0.0)	4 (16.0)	5 (14.3)	2 ( 8.0)	11 (11.2)	$\chi^2=9.6$ df=12
효과가 조금 없다	3 (23.1)	7 (28.0)	7 (20.0)	9 (36.0)	26 (26.5)	
그저그렇다	5 (38.5)	4 (16.0)	13 (37.1)	9 (36.0)	31 (31.6)	
효과가 조금 있다	5 (38.5)	9 (36.0)	9 (26.7)	4 (16.2)	27 (27.6)	
효과가 매우 크다	0 ( 0.0)	1 ( 4.0)	1 ( 2.9)	1 ( 4.0)	3 ( 3.1)	
전체	13 (13.3)	25 (25.5)	35 (35.7)	25 (25.5)	98 (100.0)	

〈표 21〉 연령별 수입 화운데이션 착용경험 유무

연령 착용이유	20대	30대	40대	50대	합 계	유의수준
있다	47 (34.8)	64 (48.1)	31 (24.6)	37 (35.6)	179 (35.9)	$\chi^2=15.7^{**}$ df=3 p<.01
없다	88 (65.2)	69 (51.9)	95 (75.4)	67 (64.4)	319 (64.1)	
전체	135 (27.1)	133 (26.7)	126 (25.3)	104 (20.9)	498 (100)	

〈표 22〉 연령별 수입 화운데이션 착용효과

연령 착용효과	20대	30대	40대	50대	합 계	유의수준
국산보다 착용효과가 좋다	20 (40.0)	30 (43.5)	18 (50.1)	20 (55.6)	88 (47.3)	$\chi^2=7.8$ df=6
국산보다 착용효과가 나쁘다	4 ( 8.0)	4 ( 5.8)	3 ( 9.7)	5 (13.9)	16 ( 8.6)	
비슷하다	26 (52.0)	35 (50.7)	10 (32.3)	11 (30.6)	82 (44.1)	
전체	50 (26.9)	69 (37.1)	31 (16.7)	36 (19.4)	186 (100.0)	

않았으나 20대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반면 50대의 경우 가장 불만족한 연령층으로 나타났다으며 30대의 경우는 효과가 없다와 있다가의 응답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 착용효과에서 비교적 개체차가 큼을 나타냈다.

4) 연령별 수입 화운데이션 착용유무

수입 화운데이션 착용경험을 조사한 결과<표 21>, 전체의 35.9%가 '있다'로 응답하였고 64.1%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48.1%, 20대 34.8%, 50대 35.6%, 40대는 24.6%가 착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젊은 층이 착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연령별 수입 화운데이션 착용효과

국산과 수입 화운데이션 착용효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표 22>, 전체의 47.3%가 '국산 화운데이션보다 착용효과가 더 좋다'고 하였고 44.1%는 '비슷하다'라고 응답하여 수입 화운데이션의 착용효과에 만족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수입화운데이션의 착용효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여성의 체형과 기호에 알맞는 우수한 화운데이션의 생산 및 효과적인 마케팅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여성의 의생활 향상에 도움을 목적으로 20~59세의 성인여성 563명을 대상으로 화운데이션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인 착용현황을 연령별로 상호관계를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른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대부분의 성인여성들은 브래지어, 거들, 팬티, 슬립 등의 용어는 90% 이상 인지하고 있는 반면 스포츠 브라, 패티코트, 브라슬립, 캐미솔, 올인원은 50% 이상의 인지율을 보였으며 롱브라, 보디수트, 웨이스트니퍼, 란주, 가터벨트, 브리프, 쇼츠, 마터니티브라, 프론트훅브라, 드로워즈의 경우 타 용어에 비해 낮은 인지율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속옷용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나 웨이스트니퍼, 올인원, 마터니티브라의 경우 30대가, 롱브라의 경우 40대의 인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출산과 수유 경험 등으로 체형변화가 심한 30대 이후 중년층의 체형특성상 체형보정을 위한 화운데이션류에 대한 높은 관심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 대부분의 성인여성은 자신의 키 (97.2%)와 몸무게 (95.5%)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데 반해 가슴둘레 (53.6%) 엉덩이둘레 (40.7%)는 중정도의 인지도를 나타냈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 경우 모든 치수에 대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 신체치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며, 30대의 경우는 신체치수 인지율이 비교적 낮은 연령층으로 나타났다.

3. 성인여성의 화운데이션 착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브래지어는 거의 모든 여성 (97.7%)이, 거들의 경우는 과반수 (64.8%) 이상의 여성이 착용하고 있으나 보디수트 (7.7%)와 웨이스트니퍼 (7.3%)의 경우는 10%내의 낮은 착용율을 나타냈고 가터벨트는 매우 극소수 (1.8%)의 여성들에 의해 착용되고 있으며, 브래지어와 거들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착용율이 낮

아지고 보디수트, 웨이스트니퍼, 가터벨트는 30대와 40대의 착용율이 20대와 50대의 착용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성인여성은 계절에 따라 화운데이션 착용에 영향을 받아 여름에는 화운데이션의 미착용율이 다른 계절에 비해 가장 높아 브래지어와 거들을 함께 착용하기 보다는 브래지어만을 착용하고 보디수트, 웨이스트니퍼, 가터벨트의 착용율도 매우 낮아 화운데이션의 착용율이 가장 낮은 계절이며, 겨울에는 타 계절에 비해 비교적 화운데이션의 착용율이 높았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브래지어와 거들의 기본적인 화운데이션의 착용율이 높은 반면 고연령층일수록 브래지어와 거들의 기본적인 화운데이션의 착용율은 낮은 편이나 보디수트, 웨이스트니퍼, 가터벨트의 착용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대부분의 성인여성들은 전체적으로 브래지어와 거들은 평균 15세를 전후해 착용을 시작해 화운데이션 중 시착시기가 빠른 편이나 가터벨트, 보디수트와 웨이스트니퍼의 경우는 주로 20세를 전후해서 시작하고 30대 이후의 시착율도 높게 나타나 브래지어와 거들의 경우는 신체 성장기에 맞춰 시작하는 반면 보디수트, 웨이스트니퍼, 가터벨트의 경우는 성인이 된 후 개인적 필요시기에 맞춰 다양하게 시작하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시착시기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성인여성은 평균적으로 브래지어 3~6개와 거들 2~3개 정도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디수트, 웨이스트니퍼, 가터벨트는 소수의 여성이 1~2개 정도를 소유하고 있으며 젊은 연령층일수록 여러개의 브래지어와 거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보디수트, 웨이스트니퍼, 가터벨트의 경우는 30대의 소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성인여성의 11.5%만이 기능성 화운데이션을 착용한 경험이 있으며 대체로 연령이 높은 여성일수록 기능성 화운데이션의 착용경험 비율이 높아 중년층 이상 여성들의 신체 정용·보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고, 성인여성들은 본인의 주관적인 필요보다는 대체로 주변 권유에 의해서 기능성 화운데이션을 구입하는 경향을 보이며 20대와 30대의 경우는 신문, 잡지, 팸플릿, 카탈로그 등 다양한 구매 정보원을 활용하

는 편이며 50대의 경우는 판매원의 권유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구매를 선도하는 판매원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기능성 화운데이션 착용후 여성들은 기대했던 만큼의 정용·보정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50대의 경우 가장 불만족한 연령층으로 나타났다.

8. 성인여성의 35.9%가 수입 화운데이션을 착용한 경험이 있고 특히 30대의 착용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국산제품과 비교해서 수입 화운데이션의 착용효과에 더 만족하고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성인여성은 연령층에 따라 화운데이션에 대한 인식 및 착용을 달리하여 20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속옷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브라지어와 거들의 기본적 아이템 위주의 화운데이션을 착용하고 있는데 반해 30대와 40대 여성들의 경우 20대에 비해 브라지어와 거들의 기본적인 화운데이션의 착용율은 낮은 편이나 보디수트, 웨이스트니퍼, 가터벨트 등 보다 기능적인 목적을 지닌 화운데이션에 대한 인식이나 착용 및 소유율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50대의 경우도 화운데이션에 대한 인식이 연령대 중 가장 낮지만 기능성 화운데이션의 착용율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화운데이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판매원에 대한 교육 및 소비자 대상의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기능적 화운데이션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30대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연령은 여성의 화운데이션 제품에 대한 인식 및 착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화운데이션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화운데이션 관련업체의 마케팅활동 방향 및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이러한 연령적 특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강여선, 기능적 Brassiere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2. 송미령, 우리나라 成人女子의 衣服構成을 爲한 人體計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3. 田中道一, 被服の運動機能性と快適性,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25 (9), 1984.
4. 百又啓爾, 下着の種類と要求される品質・性質,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24 (9), 1983, pp.389-397.
5. 平岡禮子, 若いあなたにこそ マイ・ファウンデーション-正しい下着えらび①, 衣生活研究, 17 (1), 1990.
6. 平岡禮子, 若いあなたにこそ 마이・ファウンデーション-正しい下着えら비②, 衣生活研究, 17 (2), 1990.
7. 間壁治子·赤塚博江, ファウンデーションの着用に関する現状調査について,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26 (11), 1985, pp.464-472.
8. 김효은·김순분, 여성의 속옷에 대한 인식과 사용실태, 계명연구논총, 9집, 1991, pp.199-316.
9. 손희순, 브라지어 및 거들의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제32집, 1991, pp.45-98.
10. 이춘화, 착용 상태로 본 Brassiere 형태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1. 이경화, 화운데이션 의류의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I, 원광대 논문집 (자연·가정·예체능) 31권 2호, 1996, pp.1445-1475.
12. 손희순 외 2인, 노년여성의 브라지어 착용실태 조사연구, 복식문화연구, 제4권 제2호, 1996, pp.277-302.
13. 손희순, 노년여성의 브라지어 구매실태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건강·생활연구소 생활과학연구지, 제11집, 1996, pp.87-105.
14. 김효은·김순분, 앞책, p.314.
15. 박은미·김영숙·손희순, 노년여성의 브라지어 구매의사 결정 관련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2호, 1997, pp.65-79.